

6월17일 월요일

시편 73편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관한 질문

본시는 왜 악인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늘 고난 가운데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룹니다.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고 고난이나 재앙도 없으며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실족할 뻔했습니다(2).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13).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고 했으나 돌아온 것은 고난과 재앙이었습니다(14).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깊은 고민 속에서 시인은 언제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목상하여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나요? (17-28절)

74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

본시는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위기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1-11절은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을 파괴하는 처참한 모습과 고난을 묘사하고, 12-23절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75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시

본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언제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나요?

76편 전쟁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전가

75편에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했는데(75:1), 76편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알려지셨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다고 말합니다(1).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실 때,  
 1) 8절: 땅은 두려워 ( )  
 2) 9절: 땅의 모든 ( )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6월18일 화요일

77편 옛적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

본시는 현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신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시인은 환난 날과 같은 어두운 밤을 보내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되뇌었나요? (11-12절)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로의 도피가 아니라,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는 일이며, 환난 중의 성도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거룩한 습관입니다.)

78편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서사시

본시는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노정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그리고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셨는데, 다윗은 어떤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나요? (70-72절)

79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성도의 고난

본시는 시편 74편과 같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소가 파괴되는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시인은 언제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될 것인지 물으며(5), 열방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6). 그러나, 마지막절에서 "우리는 주의 ( )이요, 주의 목장의 ( )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0편 깊은 침체에서 드린 기도

본시는 이스라엘이 열방의 공격을 받고 멸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8절-19절을 읽어보았을 때,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1) 이스라엘 백성 2) 앗수르 3) 바로왕

6월19일 수요일

81편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절과 초막절에 불렀던 찬송

본시는 특별히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지난 날 광야에서 자기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때 그들은 81편을 찬송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요?

82편 유일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노래

세상에 정치가, 지도자, 재판장들이 하는 불공평한 판단, 악인을 선하다고 한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2절). 시인은, 특별히 더욱 공평하고 공의롭게 판단하여 지켜주어야 하는 사회의 약자들은 누구라고 하나요?

83편 전쟁의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본시는 모든 세력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2-8)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 소유로 얻으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는 상황입니다(12).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시고 옛날 열조들을 승리하게 주셨던 것처럼 싸워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1,9-18). 다음 중 악한 원수의 세력들이 멸망당하기를 간구하는 비유적 표현들을 모두 찾아보세요.  
 1) 굴러가는 검불 2)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3) 삼림을 사르는 불 4) 산에 붙는 불길

84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본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의 전 가까이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다(3). 또한 그는 "주의 궁정에서의 ( )이 다른 곳에서의 ( )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 )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6월20일 목요일

85편 돌아오셔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본시는 포로기를 지내고 나서 쓰인 시로 추정됩니다. 1절에서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며, 모든 진노를 거두셨다고 합니다(3절). 그러나 시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전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4-7절)

특별히 시인은 6절에서 "우리를 ( ),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 이까?" 라고 포로기 이후 부흥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86편 환난 날에 드리는 기도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종일 부르짖습니다.(1-3절) 특별히 7절에서 시인은,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나요?

(다윗은 자기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87편 하나님의 성에 대한 찬송시

본시는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 대한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거처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을 더욱 사랑하십니다(2절). 이 찬송시는 오늘날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를 향한 노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온", "하나님의 성" 대신에 "교회"라는 단어를 넣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88편 신자의 삶의 현실 그리고 기도

본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의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절망에 빠진 성도의 모습이 믿음이 없이 느껴지나요? 아니요, 다윗도 절망과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3절)

6월21일 금요일

89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드린 기도

본시에서 시인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그 내용은 반복되는 두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합니다. 그 두 단어를 찾아보세요. (1,2,49절)

90편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생

본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삶을 생각하며 이 시를 읽는다면 더욱 깊은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본시 2,4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3,5절은 일시적인 사람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칠십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요? (12절)

91편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축복

본시는 생명의 길의 영광을 묘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3-8절은 주님을 영원한 피난처와 거처로 삼는 자가 누리는 특권을 설명합니다. 사냥꾼의 울무, 전염병, 밤의 공포, 재앙의 공포 등으로부터 안전히 보호받을 것입니다. 혹시 현재 불안과 공포,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1절 말씀처럼, "( )으로, ( ) 아래로 나아갑시다."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본시는 안식일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임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시인은 4-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있나요?)

6월22일 토요일

93편 하나님의 영원하고 견고한 통치를 찬송

본시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합니다. 3절에 나오는 "큰 물"은 당시 고대인들이 바다를 가장 두려워했다는 점에서 이해해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능가한다는 의미입니다.(4절) "높이 계신 ( )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94편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

본시는 악인이 더욱 잘 살아가는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심적고통을 잘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뭇백성을 징벌하실 것이며 (10절), 행악자들을 치실 것입니다(16절). 성도들의 편에 서 계신 이런 하나님을 시인은 1절에서 어떻게 반복하여 표현하나요?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본시는 "오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구원의 반석 이신 분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고 초청합니다. 7절에서 시인은 "그는 우리의 ( )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 )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 )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96편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본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온 땅을 부릅니다. 또한 만국의 족속들(7절)과 모든 나라들(10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합니다. 또 한주를 보내고, 내일 주일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기도로 내일 주일을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으로, 그 큰 손으로 돌보시는 양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평생에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마음 다해 순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